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3월 27일 (제114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 럼

솔직하라

어느 선교사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 성도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숨겨야 하는 건지 내게 전화로 물었다. 나는 그에게 '사실대로 말해라. 군인이 싸우다가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거다. 사역에 힘쓰다 보니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솔직함이 무기요, 힘이다. 솔직해야 당당하다. 목회 초, 나는 젊은 나이였지만 일주일 내내 집회를 다니다 보니 몸이 아주 쇠약해졌다. 그때 박 목사님이란 분이 제발 건강을 돌보라며 웅담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은 꼭 소주 반잔과 함께 먹어야 한다면 섭취법을 알려주셨다. 지방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려다가 웅담을 먹어야겠기에 성도들더러 먼저 식당에 가라고 하고는 혼자서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아 뽕사! 주인이 '목사님!' 그러는 거다. 거기에 대놓고 어찌 '소주 주세요.'를 하겠는가. 그래서 애꿎게 껌만 한 통 사가지고 나왔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며 성도들에게 이러저러했다고 말했더니 성도들이 '아 휴, 여기서 시키면 돼요.' 하면서 소주를 시켜주어서 그것으로 웅담을 먹었다. 그런데 말 없는 말이 얼마나 빠른지... 교회가 난리가 났다. '목사님이 술 먹었다'는 소문이 교회 안에 뽕 돈 것이다. 진짜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나는 결단하고 주일에 단에서 솔직히 말했다. "저 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쳤다. 솔직하게 고백한 내가 그렇게 고맙더라.

솔직함은 진실과 상통한다. 아담이 솔직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가인이, 사울이 솔직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아차피 해 아래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데 솔직한 것이 힘이 되지 않을까(히4:13).

자수해서 광명 찾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그것은 마치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그것에 깔려 죽고 말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정직하고 분명하면 뽕뽕하고 당당하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

최근 전 세계인의 우려 속에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고통에 처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연대와 지원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개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왔고 개전 이후에는 더욱 기도에 박차를 가하며, 더 나아가 종전 후 우크라이나 교회 재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다.

우크라이나 집회가 처음 시작된 것부터 놀라움이었다. 새천년이 열리며 우리는 해외 원주민을 상대로 한 집회로는 처음으로 인

2000년 6월, 현지에 도착하여 정말 생소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환영을 받았을 때의 그 열렬함이란 지금도 영화 한 장면처럼 생생하다. 정차돌, 곧 슬라바 전도사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 한국에서 온 동양인 목사님을 마치 유명 연예인을 만난 듯 기뻐하며 포옹하고 뽕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시기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우크라이나 선교는 우크라

할 것을 촉구하였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성의 재건을 위해 준비하고 점검하며 총력체제로 매진한 결과 52일 만에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산발타와 도비아 등의 훼방꾼들도 있었고, 귀족들 같은 방관자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 재건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기도하고,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준비가 그 밑바탕이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공항에서 전통 빵으로 영접하는 드네프로교인들과 함께

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복음을 전했다. 아마도 그 당시 첫 해외집회 영상을 보며 우리 교인들 모두 경이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00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 유럽,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우크라이나라는 곳에서 최영석 목사라는 분이 88체육관을 찾아왔다. 우크라이나 드네프로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 분을 꼭 우크라이나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그런데 러시아말 통역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그는 부교역자인 정차돌이라는 고려인 3세 전도사에게 한국어 가르쳤다고 한다.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정 전도사는 목사님의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이나 13개 도시를 17회 방문하며 10여 년간 지속되었다. 2011년의 우크라이나 목회자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선교의 결정판으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라루스, 러시아 등을 포함 총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들의 기뻐하던 모습, 기도하던 모습, 찬양하던 모습, 모든 것이 눈에 선한데 지금 그곳이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초토화되고 있으니 목사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죽할까.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며 복음을 전한 곳인데, 목사님이 느끼시는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합심기도를 독려하실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교회 재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뜻있는 성도들의 동참을 적극 요청하고 계신 것이다.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

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땅에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정착을 위해 매사 부지런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평화란 행복밖에 없고, 이는 곧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는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비극을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선진국가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 곧 우리나라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9:14~26)

나는 우크라이나를 잊을 수 없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선교 일행과 함께 2000년부터 약 15년 동안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하리코프, 키예프, 니콜라예프, 심페로폴, 오데사, 자파로시, 펠리토폴, 루츠크, 코벨, 폴타바, 수미, 키로보그라드 등 13개 도시를 17회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구(舊)소련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무수한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드네프로에 가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했고, 숙소에서 가스에 질식되어 죽을 뻔했으며, 폭탄물 위협을 당하고, 경찰들이 숙소로 들이닥치고, KGB에 끌려가고, 종교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하고, 정말 피땀과 눈물을 쏟아가며 복음을 전한 지역입니다. 고생할 때 난 자식이 더욱 안쓰럽고 애정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곳이 지금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에 동참한 300여 명의 동지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있고,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봤던 펠리토폴도 이미 러시아군에 점령당했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지금은 청년이 되어 총을 들고 전쟁에 임했을 것이고, 상당수가 어찌면 전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못해 저립니다. 슬라바 목사의 담담한 찬송을 들을 때마다 저 심정이 어떨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내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내 국민이 풍전등화에 놓였고, 나와 내 가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중에서도 담담하게 찬양하는 슬라바 목사의 믿음이 대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지요, 한 형제입니다.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전쟁의 아픔과 난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외면한다면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 목숨 바친 수많은 참전국의 희생을 외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어서 빨리 종전이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

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고,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끝났고 다윗의 싸움 같아 승산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니까요.

열왕기하 6장을 봅시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급파했습니다. 왜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 면 이스

들의 눈을 가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했고 엘리사와 게하시는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드온 용사 300명으로 13만 5천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박을 내려쳐서 원수들을 죽인 수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수보다 더 많았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린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겐 적을 방

어하거나 공격할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

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철 병거를 지닌 하솔 군을 격멸시켰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권능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항하여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속히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참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 티셔츠 바람으로 총을 들고 전쟁에 임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켈렌스키가 아주 듬직합니다. 나라가 위급해지면 먼저 해외로 도망치는 지도자들도 많은데, 그런 면에서 켈렌스키는 아주 믿음직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눅14:31~32)는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가 좀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았더라면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계속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상을 했더라면 전쟁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난 후에 협상하지 말고, 전쟁 전에, 내 국민이 죽고, 내 국가가 파국을 맞기 전에 협상을 벌였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미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나를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고는 사전 통보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9.11 테러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앙정보부는 알 카에다의 테러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부시 대통령에게 여러 번 올렸으나 매번 무시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국 엄청난 인명피해와 손실을 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파국을 막으려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를 잘 깨닫고,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재앙은 이러한 전쟁에 비할 수조차 없는 환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도 아끼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원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기초가 됩니다. 아울러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희망의 끝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크라이나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도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페트로 달러의 부침

페트로 달러(Petro dollar)는 주요 원유수출국인 OPEC 구성국, 그리고 기타의 중동, 노르웨이 및 러시아를 포함한 산유국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미국달러로 거래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인베스토피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유가를 100% 이상 인상시켰고 감산을 시작하여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OPEC의 말형 역할을 하는 사우디의 왕실과 협의하여 미국달러를 원유거래에 대한 단독 결제통화로 확정하였고, 또한 산유국들은 취득된 달러수입으로 미국산의 각종 제조상품, 군수물자 및 무기, 그리고 미국의 국제 및 금융채권까지 매입하도록 하여 브레튼우드 시스템의 붕괴 이후 상실할 수 있었던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시켰고 심각하게 누적되었던 국제수지의 적자와 연방 및 지방정부의 각종 적자 및 과부족까지 일괄 해소하였습니다.

당시 금융제도가 미비했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는 상업은행까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표시 판매수익은 자연스럽게 영국, 독일, 미국 및 해외에 진출한 미국은행의 지점에 예치되었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특화되었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이들 국가의 각종 인프라 사업을 주관하면서 세계경제의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임윤석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금식의 위대한 약속

“엄마, 금식 좀 줄이시면 안 될까요? 건강이 염려돼요.”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시는 어머니를 걱정하던 제게 어머니는 간증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금식을 명하셔서 3일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두 팔을 위로 들 수 없는 상태였는데 금식 후에 씻은 듯이 나아져 지금까지도 멀쩡해.”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사58:6).

극심한 몸살에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아픈데 밥을 굶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내 순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금식을 시작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제 몸에 있던 온갖 통증들이 사라졌고, 그 이후부터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금식기도 하였던 어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본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유튜브로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던 중, 사울에게 쫓겨 다니며 심신이 괴로웠던 다윗이 금식하였더니 기도가 그의 품으로 돌아왔다(시35:13)는 목사님의 말

이 기간은 이념으로 양분되어 첨예하게 대립하던 냉전시대였는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서방국가들은 중동의 봉건적 전체주의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들의 정치, 경제 부분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어려웠고, 중국은 열악한 농업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업화 속도가 빠르고 세계적으로 높은 원가효율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은 페트로 달러의 수혜를 크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로 인하여 러시아가 수출 제재를 받게 되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의 수입량과 위안화 결제 비중까지 확대하였고 사우디 또한 대(對)중국 원유수출대금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수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는데, 이것은 페트로 달러의 종식은 물론 국제금융의 주도권 또한 분산되어 미국 및 서방의 결속력을 더욱 약화시키면서 새로운 블록을 창출하리라 예상합니다.

선택받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후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 지는 성경이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수십 년에 걸쳐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총회장 목사님처럼, 각 개인이 더욱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 겨자씨만한 믿음 ::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어떤 실험에서 특정 그룹에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단어를 보여주고 해당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하였고, 다른 참가자 그룹에는 노인과 무관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게 하였다. 과제를 마친 후 실험이 끝났다고 참가자에게 알리고 참가자들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속도를 측정하였다. 노인과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로 문장을 만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도가 평균보다 느렸다고 한다. 잠깐 문장을 만들었을 뿐인데도 영향을 받은 것이다.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유명했던 신창원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엄한 성격이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가 범죄자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으로부터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 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라는 막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

끼고 어둠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서 큰 사람이 되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성경 속에서도 ‘들음’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뱀의 간교한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 마귀가 주입한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에 불들려버린 가롯 유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인물들은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

부정적인 환경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환경은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결과는 낳는다. 장작 쪼개는 옆에 있으면 나뭇조각이 튀기고, 떡 찌는 옆에 있으면 떡 조각이 날아드는 법, 나는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자. 부정적인 사람, 악한 사람들 속에 있다면 지금 당장 빠져나와야 한다.

김성일 집사



:: 소망의 언덕 ::

야성을 잃지 마라

“아메리카노 한잔이요.” 집에 들어가는 길에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려고 카페 문을 밀며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마감했습니다.”

점원의 말에 시계를 보니 9시가 막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정부시책으로 영업시간이 변경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정말 마시고 싶었지만 저는 점원의 말 한마디에 깔끔하게 대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다면 과연 나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제발 한 잔만 팔아달라고 해야 했지 않았을까?’ 밤이니 돌아가라는 친구 말에 그것이 매너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섰다면 보리떡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인파에 막혔으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네 명의 친구는 과연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침 받게 할 수 있었을까?

요즘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자가진단

키트부터 찾습니다. 그것이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얼른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내 옆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신앙의 야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 목사로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여러 가지로 턱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많은 제약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맹수가 사냥꾼에게 잡혀 동물원에서 길들여질 때 단번에 야성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와 길들이는 교육에 따라 서서히 야성을 잃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해야 할 자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신앙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자.”고 외치고 계십니다.

총성과 포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의 모습과 소식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모습을 끌어내고 다시 야성을 되찾기를 결단해봅니다.

이현승 목사

물에 얼굴이 비침 같이

어느 날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거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아이에게 눈을 부릅뜨며 버럭 화를 낸 적이 있었다. 핑계를 대자면, 정리하지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했지만 엄마 말 안 듣고 정리를 안 했다는 건데, 사실 내 잘못이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같이 정리했으면 됐을 텐데...,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그날 저녁 아빠랑 같이 놀던 아이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화가 난 모습을 취해 나와 남편 둘다 몹시 놀랐고, 아이는 아빠에게 많이 혼났다.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몹시 찢렸다. ‘아까 내가 아이를 혼냈을 때 내 모습이 저랬겠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아빠와 이야기를 마치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사과를 했다. 엄마가 아까 미안했다고, 앞

으로는 엄마도 조심하겠다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잠 27:19)는 잠언 말씀이 떠올랐다.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엄마가 화내면 아이도 같은 모습으로 화를 낸다. 말투도 마찬가지이다. 5살 된 둘째 아이의 말투가 나랑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는다.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해한다. 잠언 말씀이 요즘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나와 아이들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스스로 미션을 만들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싶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번 아이 보고 웃어주기, 따뜻하게 안아주기, 사랑한다 말해주기 등으로. 그렇게 했더니 아이도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엄마, 아빠가 화를 낼 때의 표정, 또는 무

표정한 모습이 우리 아이들 눈에 어떻게 비치지 부모 본인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미처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보인다. 웃는 모습, 편안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이고 전부이고 삶 그 자체이다. 부모를 통해 삶을 배운다. 부모의 삶을 닮아간다. 사람을 대하는 법, 인생을 살아가는 법,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 등을 말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사랑에 기초한 진심 어린 따뜻한 소통인 것 같다. ‘대화의 단절은 오해를 낳고,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오늘도 힘차게 엄마 공부 시작해본다.

정효경 집사
happy_hoiy@naver.com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생 때였다. 당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든 가방을 도둑맞은 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 섞인 기도를 했었다. 아차 싶어 원망한 것을 바로 회개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 잃어버렸던 방언을 다시 찾게 되면서 그 사건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살다 보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마주할 때가 있다. 매일 기도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착각이 숨어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않는다 하신다. 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하신다.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던 행하지 않던,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에 골인하면 행복한 나날만 있을 거라는 착각처럼, 교회를 잘 다니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앞으로의 삶은 평탄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원망을 한다. 결혼, 사업, 학업,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우리는 풍파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만 잘 붙들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먼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다음은 행해야 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예3:33).

박찬영 집사

JC ACADEMY 개강
2022. 3. 22(화)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삶을 바라보는 시각 ‘기도’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까닭은 삶 가운데 불안과 자기의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간의 이런 모습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나 에덴의 동쪽 ‘놋’에 살면서부터 시작된 것 인지도 모르겠다. 놋은 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유리하다, 방향하다’라는 뜻도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는 불안하고 방향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헛헛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과 공허함을 내면에 간직하고 산다는 것에.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이다. 안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해 결핍이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의 얘기를 듣고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약 15년 동안 신앙 생활하셨던 분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21일간 작정기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도했던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단다. 그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은 건, 하나

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며 교회를 떠나셨단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새벽기도를 시작한다. 병에 걸렸을 때 철야기도를,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작정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문제해결을 위한 방편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호출하기만 하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짤’하고 나타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발행한 기독교계 월간잡지 ‘성서조선(1927~1942)’을 쓰셨던 김교신 선생은 선달그믐날 자기의 살아온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내가 당신께 드린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절박한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거절해준 것이 더 고맙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앞서 나눈 사례와는 참 대조되는 모습이다. 어쩔 김교신 선생은 때때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기각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겸허함을 배웠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각된 기도가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

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마6:8)고 하셨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하시는 하나님. 이는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또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마음을 기준 삼아 나의 마음을 조율해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면 문득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게 되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현실이 나를 억압하고 있던 그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뿐인가 ‘때에 따라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

내가 한 기도가 기각되었다고 속상해하기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소망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한주가 되기를 소망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